高校讀書教育 이대로 둘 것인가

획기적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朴容科
경기상업고등학교 司書敎師

지금까지의 독서지도의 문제점

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지도나 교육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학생의 학교생활의 주된 분야는 학습활동이고 이것은 곧 책을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더우기 고교생은 학습태도가 확립단계에 이르고 있어 학습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독서교육은 청소년의 중핵인 고교생 시절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 의한 결론이다.

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흔히 독서지도, 독서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온 말이다. 70년대에 들어와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일기 시작한 독서운동은 독서지도, 독서교육으로 심화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까지 독서지도, 독서교육은 ① 문학류 일변도의 책읽기와 그 독후감 작성에 급급하였을 뿐 독서의 개념에 터잡아 출발한 논리적인 지도가 되지 못한 점 ② 독서에 관한 지도가 비정규 교과시간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규교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전문지도교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점 ③ 일반 교과와 관련을 맺지 못하고 대부분 독후감을 쓰기 위한 문학류 읽기에 그치고, 각 교과학습과를 연계시킨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와 또 도서관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검색 및 활용법, 책이나 독서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물론 독서력의 효율적인 개발 등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正規 敎科형태로 10년간 지도해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필자는, 학생의 생애학습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교육철학이 뚜렷한 학교장의 배려하에, S인문고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략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독서지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1. 지도방향

독서교육은 독서의 개념에 터잡은 논리적·체계적·종합적인 지도가 되어야 비로소 독서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이나 독서 및 도서관에 관한 기본상식도 없이 책을 읽거나 독서지도를 한다는 것은 뿌리없는 꽃꽂이 화초나 뿌리가 약한 나무에 불과하다. 책읽는 순서나 책의 개요파악법, 書名(題名)에 초점을 맞춘 독서와 이를 위한 원서명·저자명·최초 발간년의 검색법,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관계된 사항을 일람할 수 있는 판권지에 대한 이해, 갖가지 독서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독서력의 개발과 효과적인 학습기술 등 이른바 독서학습(Learning to read)과 학습독서(Reading to learn)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하게 평생학습의 길잡이로서의 독서교육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지도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하고,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서교육의 정규과목화와 전문지도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지도로 전환돼야 마땅하다.

2. 실시 개요

가. 정규교과로 설정 운영 : 독서지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자유선택교과의 하나로 설정, '독서'과목을 선정하여 실시.

나. 실시 시간 : 주당 1시간 정규 교과시간표로 편성.

다. 실시 대상 : 제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초학년에서 독서학습을 제대로 익힘으로써 이것이 고학년이나 졸업 후에도 자주적인 학습독서와 생애학습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 총괄평가 : 매 학기말에 실시.

마. 지도내용

1) 기본방향과 목표

종래 일제(집단)독서·문학류 독서 일변도의 형식적이고 알맹이없는 지도방식을 교과학습과 연계시킨 독서지도로 전환, 시험공부를 위해 자습실이 되어버린 학교도서관을 학습의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책·독서·도서관 및 교과학습을 통합화하는 데 독서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책·독서·도서관 전반에 걸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상식을 갖고 자주적인 독서학습활동에 임하게 하며, 특히 각 교과학습에 공통되는 기본요소의 학습능력인 '독서학습'을 통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책과 학습독서를 가능케 한다. 물론 독서를 통해 일반교양과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독서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2) 주요 지도내용은 기본적 단계·발전적 단계 및 평가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본적 단계는 독서교육의 시발점으로서 독서지도의 내용 및 방향설정에 해당하는 기초적 사항이 주가 된다. 즉, 독서교육은 독서 및 독서지도 개념의 정확한 파악과 책·독서·도서관 등에 관한 일반상식을 아는데서부터 출발한다. '독서'의 현대적 의미는 기록된 또는 인쇄된 어떤 자료의 내용의 의미를 그 특성이나 기호의 해석에 의해 파악하는 두뇌의 기능이며, '독서지도'는 독자가 읽을거리(독서材) 내용의 의미를 바르고 빨리 파악함으로써 독서목표에 도달하도록 바로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교육활동이다. 독자는 독서할 때 독서목표에 늦게 도달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빗나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독서목표에 바르고 빨리 도달하게 지도하는 것이 독서교육의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의 개념에서부터 1. 어떤 자료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독서재의 선정 지도 2. 어떻게 바르고 빨리 독서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 3.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학습방법을 과제학습이나 문제해결에 응용하는 이른바 발전적 단계로서 사고력·응용력에 대한 지도 등이 독서교육의 내용으로 도출된다.

특히 책을 어떻게 바르게 빨리 읽을 것인가에 관한 지도로는 1. 책을 읽는 순서와 책의 개요파악법 2. 원서명(원제)·부서명(부제) 등 書名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인명(특히 서양인명)의 검색법을 비롯한 각종 참고도서의 활용법 4. 각종 독서재(읽을거리)에 알맞는 독서법 5. 읽는 내용의 중요부분을 논리적·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6. 독서력의 개발—SQ3R범, 기초 속독훈련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발전적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1. 자기가 읽는 책의 내용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하여 이해하는 프로그램식 독해법 2. 기본적인 독서학습을 과제학습이나 기타 문제해결에 응용하는 사고력·응용력 개발의 지도 등이다.

끝으로, 평가단계로는 주로 배우고 익힌 독서학습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으로 1. 북 토크 2. 독서발표와 토론 3. 각종 주제사항의 조사발표 요령 4. 紙筆평가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실시 등이다.

3) 구체적인 지도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독서의 개념에 터잡아 전개된 내용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였는데, 대체로 6단원을 연간 약 39~40시간 정도가 되게 하여 정규시간표에 의거 운영하였다.

학교장의 교육적 소신이 중요

요즘의 독서는 학습이자 생활기술의 하나라고 하며 혹은 생활 그 자체라고도 한다. 독서지도·독서교육이 장학지침의 하나로 강조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청소년기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중·고생에게 독서가 진정 필요한 교육활동이라면 왜 이것을 정규교과로 채택해서 자격있는 전문지도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종합지도를 하도록 하지 못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제도상의 여러 문제가 없지 않겠으나, 현재의 교육여건 아래서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이 학교장의 재량권에 일임되고 있는 이상, 독서교육의 실시는 각급 학교장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있으나마나한 형식적 활동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독서교육이 문학류(주로 소설책) 몇권을 윤독시켜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거나 혹은 남의 글을 베껴 낸 것에 시상하는 정도가 고작인 현재의 각급 학교의 독서지도 내용과 방식은 하루속히 교육적이며 학문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임무를 감당할 자는 누구인가? 학교에서 숨은 봉사자로, 법적으로 가장 많은 서러움을 받으면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확고한 소신, 충분한 지적 소양과 열의를 지닌 司書敎師가 마땅히 해내야 할 천부의 소임이 아닐까.

필자 약력

연세대 이공대 중퇴, 동아대 법과·성균관대 사서교육원·단국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 수료. 국방대학원 도서관 사서관·성동고교 사서교사 역임.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분회 이사·서울시 사서교사연구회 부회장